

참수·화형으로 勢과시...가중되는 'IS 공포'

IS 인질 살해 일지 현지시간 기준



마즈 알카사스베(26)
 • 요르단 조종사
 • 2014년 12월 미국 주도 국제 동맹군 IS공습에 참가했다 전투기 추락으로 생포
 • 2015년 2월3일 불태워 살해한 영상 공개



고토 겐지(47)
 • 일본 기자
 • 2014년 10월 말 IS에 붙잡힌 유카와 씨에 관한 정보를 얻고, IS가 장악한 지역의 보통 사람들 취재차 시리아로 갔다가 실종
 • 2015년 2월1일 참수 추정 영상 공개



유카와 하루나(42)
 • 일본 사업가
 • 민간 군사업체 경영자로 2014년 시리아 입국 후 IS(이슬람국가) 억류 추정
 • 2015년 1월24일 참수 추정 영상 공개



피터 캐시(26)
 • 미국 자원봉사자
 • 시리아 난민 구호활동 중 2014년 10월 IS에 납치
 • 2014년 11월16일 참수 영상 공개



엘렌 황(47)
 • 영국, 구호활동가
 • 2013년 12월 시리아 난민에게 의료물자를 전달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는 봉사활동 중 IS에 납치
 • 2014년 10월3일 참수 영상 공개



에르베 구르멜(55)
 • 프랑스, 산악가이드
 • 2014년 9월 알제리 산간 지역 이슬람 IS 연계조직 북아프리카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에 납치
 • '준드 알 칼리파' 2014년 9월24일 참수 영상 공개



데이비드 헤인즈(44)
 • 영국, 구호단체 직원
 • 2013년 시리아에서 터키로 이동 중 중상과리에 납치
 • 2014년 9월13일 참수 영상 공개



스티브 소트로프(31)
 • 미국, 프리랜서 기자
 • 2013년 8월 시리아에서 납치
 • 2014년 9월2일 참수 영상 공개



제임스 라이트 폴리(40)
 • 미국, 프리랜서 기자
 • 2012년 11월 시리아 북부에서 실종
 • 2014년 8월19일 참수 영상 공개

자료/ AFP 등 외신 종합 **연합뉴스**

IS 공습 참여국 불안 확산

오바마, 지상군 파병 반대

당분간 돌파구 마련 힘들 듯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인질 참수에 이어 화형까지 동원하며 세 과시를 거듭하면서 'IS 공포'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인질 처형이 미국 주도의 IS 공습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국가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국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IS는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의 참수 영상을 공개한 지 이틀만인 3일(현지시간)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를 불태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심지어 IS는 참수도 모자라 화형이라는 잔혹한 방식을 동원하면서 공포 확산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알카사스베 중위의 피살 영상

공개로 미국의 IS 격퇴전에 동참한 국가들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이번에는 서방과 일본에 이어 요르단이 타깃이라는 점에서 IS 공습에 참여한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IS 공포'가 급속히 번질 가능성이 있다. 중동의 대표적 친미국가로 미국의 IS 공습 작전에 동참해온 요르단은 당장은 알카사스베 중위의 처형에 격분하며 응징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IS 격퇴전 동참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요르단이 국제동맹군에서 갑자기 빠지는는 어렵겠지만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IS 격퇴전 개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 수니파 걸프국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은 내부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 하원의원 플라 알파라 알흐름은 영

국 BBC방송에 알카사스베 중위의 처형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IS 격퇴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IS는 인질 처형과 동시에 서방에 대한 테러를 선동해가며 전선 확장에 나서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유튜브 등에서 유포된 동영상에는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무장대원들이 프랑스 내 무슬림에게 군인과 경찰을 공격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방은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동맹군은 최근 시리아 북부 요충지 코바니에서 IS를 물리치기도 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반년간 이어진 공습으로도 IS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나서 지상군 투입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당분간은 IS의 세 과시를 서방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요르단 조종사 처형 장면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지난해 12월 생포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를 살해하는 영상을 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22분짜리 이 영상은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마즈 중위가 야외에 설치된 철창에 갇힌 채 불길에 휩싸여 사망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사진은 테러·극단주의 감시단체 '사이트'(SITE) 사이트에 실린 이날 영상에서 캡처한 마즈의 모습. **연합뉴스**

요르단, 女 테러범 등 2명 사형...IS, 조종사 처형에 보복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국가(IS)의 요르단 조종사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4일(현지시간) IS가 석방을 요구한 여성 테러범 사형수 사지다 알리사위(45)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모함마드 알모마니 요르단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4시 알리사위 등 사형수 2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IS가 3일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26) 중위를 불태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하

고 요르단 당국이 보복을 공언한 지 몇 시간만이다. 알리사위는 IS가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健二)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며 석방을 요구했던 이라크 출신 여성 테러범이다.

알카에다 조직원이던 그는 2005년 암만의 호넷 3곳에서 자행돼 60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살폭탄테러에 가담했으나 폭탄이 터지지 않아 현장에서 생포됐으며 사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해왔다. **연합뉴스**

IS는 당초 일본인 인질 2명을 억류한 채 2억 달러를 몸값으로 요구하다가 유카와 하루나(湯川隆榮)를 참수한 뒤 알리사위의 석방을 요구하며 알카사스베 중위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요르단 정부는 알카사스베 중위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맞섰고 결국 IS는 1일 고도를 참수한 데 이어 이를 뒤인 3일 알카사스베 중위를 불태워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본 대학생들에 물어보니

“군 위안부·징용 피해자에 日 정부 충분히 배상 했다”

일본 대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국 정부가 충분히 배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팀은 한·일 수교 50년을 맞아 지난 달 13일부터 열흘 동안 양국 대학생 각 25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도쿄의 중심 거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법을 활용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조사팀은 양국 대학생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본 정부는 이미 충분히 배상"(37.6%)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을 원치 않는다"(30.0%)고 응답했다. 반면, 한국 대학생의 94.4%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일본 대학생 32.4%가 같은 답을 한 것과는 확연한 인식 차이가 났다.

서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역사 왜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그러한 사실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양국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역사 교과서 개정이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부정 등 아베 총리의 역사관에 근거한 한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묻는 항목에 일본 대학생(50.4%)과 한국 대학생(64.8%) 반수 이상이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양국 이미지와 관련, 한국 대학생들은 보통(40.8%)·나쁘다(37.6%)·좋다(11.6%), 일본 대학생들은 보통(36.4%)·좋다(32.4%)·나쁘다(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국의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한국 대학생들이 "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인식 차이"(78.4%)라고 꼽은 것에 반해 일본 대학생들은 같은 의견(46.4%)을 피력하면서도 "아베 정권의 정치적 성향"(19.2%), "국민 간의 감정"(18.8%), "각 분야의 경쟁 구도"(15.6%)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0년간 양국 교류의 중대한 사건을 묻는 항목에 한국 대학생들은 한일 수교 체결(38%), 월드컵 공동 개최(30.8%)를 꼽았고, 일본 대학생들은 월드컵 공동 개최(34%), 한일 문화 개방(28.8%)을 골랐다.

수치 여사 “대통령 꿈 접지 않았다”

미얀마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헌법상의 걸림돌로 말미암아 대통령직 도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에도 아직 대통령이 되는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수치 여사는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도전을 가로막는 헌법 조항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직계 가족 중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다. 영국인 학자와 결혼했던 수치 여사는 영국 국적 아들 두 명을 둔 만큼 이 조항이 바뀌지 않는 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셈이다.

올해 70세가 되는 수치 여사는 또 "이런 내용의 헌법 조항이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얀마는 올해 10월 말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선 뒤 구성된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한다. **연합뉴스**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염주동 상가건물매매(3층건물)
삼거리코너(1,2층 상가, 3층 주택)
월수익 400만(주인 거주가능)
매가 7억(보 1억, 용 3억)

1. 북구 구호천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2.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3.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4.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5.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면(임대가능)
매가 3억5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7.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상업지역) 사무실임대 (학원 시설안비) (사무실 가능) 중심대로변 주차시설안비

보 3천, 월 130만

상업중심지역

- ①1층, 2층 3층, 4층, 4층
- ②월수익 1,020만
- ③전사가 다입주 되어있음

010-6670-98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① 기본 경매 강의
- ② 바로 실전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오전10시~오후 7시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목포시 상락동(토221㎡, 건548㎡) 감정가3억7천, 최저1억7천
- ② 장성 삼계(토1068㎡, 건631㎡) 감정가2억5천, 최저9천1백
- ③ 순천시 행동(토373㎡, 건1304㎡) 감정가172억, 최저120억
- ④ 구례군 산동면(토1329㎡, 건958㎡) 감정가5억2천, 최저2억3천
- ⑤ 동구 계림동(토445㎡, 1558㎡) 감정가10억, 최저7억5천
- ⑥ 북구 운암동 (토273㎡, 건물247㎡) 감정가2억, 최저가1억7천3백
- ⑦ 북구 흥흥동 (토133㎡, 건물253㎡) 감정가1억7천, 최저가1억1천
- ⑧ 남구 서동(토306㎡, 건물90.18㎡) 감정가1억6천, 최저가 1억1천

오피스텔

- ①서구 치평동(대5.23, 건물331.12) 감정가6천7백, 최저가3천7백
- ②서구 화정동(대14.144, 건물44.35) 감정가5천, 최저가5천

공장

- ①광산구 월전동(토지4162㎡, 건물3281㎡) 감정가30억, 최저가16억
- ②북구 월출동(건1746㎡) 감정가25억, 최저가11억
- ③광산구 지죽동(토2073㎡, 건물1187㎡) 감정가16억, 최저가9억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